

古代 中國과 印度의 地理 觀念에 대한 비교 고찰*

安 正 燾**

<目 次>

I. 들어가며	IV. 漢譯佛經에서 보이는 古代 印度 佛教의 地理 觀念
II. 고대 세계인의 地理 觀念이 가지는 특징	V. 印度의 상상력과 中國의 상상력, 그 구조와 해석
III. 고대 중국의 地理 觀念	VI. 맺으며

I. 들어가며

중국 고대의 목록서인 《隋書·經籍志》를 보면 史部에 地理류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는 《山海經》, 《水經注》, 《佛國記》, 《神異經》 등 139부 1,432권의 書目이 기록되어 있다.¹⁾ 사실 地理에 관한 기술을 찾는다면 《尚書》의 <禹貢>편까지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수서·경적지》 사부 地理류에 수록되어 있는 地理서 중에는 각 지역의 風水나 산물, 백성들의 생활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순수한’ 地理서도 많지만, 《山海經》, 《神異經》, 《十洲記》 등과 같이 현대인의 地理적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상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典籍들도 많다. 이러한 전적들은 唐·宋대의 도서 분류에서도 사부 地理류에 속하다가 紀昀의 《四庫全書》에 이르러서야 그 내용이 가지는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唐 魏徵等 撰, 《隋書》(中華書局, 1997년), 987쪽.

허황함으로 인해 子部 小說家로 옮겨진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고대 중국 인들은 다양한 상상력으로 가득 찬 이런 정보들을 정말로 지리적 지식이 라고 믿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필자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 고대의 地理書에서 드러나는 지리적 관념을 형성하는 두 축에 대한 것이다. 즉, 중국 고대의 지리서는 그것이 正史계열이나, 志怪계열이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既知의 영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와 未知의 영역에 대한 상상력의 서술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이러한 결합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낯선 공간에 대한 상상적 기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漢譯된 佛經 속에 나타나는 佛敎的 地理觀을 살펴보고, 古代 中國의 지리 관념과의 비교를 통해 양자가 가지는 같고 다른 점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설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서술되는 古代 印度人들의 지리 관념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들이 가졌던 지리적 상상력의 구조와는 어떻게 같고 다르며, 또 나아가 이들의 지리 관념이 古代 西方세계의 지리 관념과는 또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지리적인 관념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대인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未知世界에 대한 상상력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그 가운데 다분히 ‘중국적인’ 요소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중국 고대의 전적들을 참고하였다. 먼저 중국 고대의 지리적 관념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자료로 《尚書》〈禹貢〉편과 《呂氏春秋》〈有始覽〉, 《淮南子》〈地形訓〉, 《山海經》, 《神異經》, 《博物志》, 《水經注》, 그리고 《隋書·地理志》 등을 살펴보았다. 《여씨춘추》와 《회남자》, 《박물지》는 史部 地理類에 속하지 않고 子部 雜家類에 속해 있는 전적이지만, 그 속에서 戰國시기와 漢代 초기의 지리적 관념이 잘 드러나는 좋은 소재이므로 꼭 살펴봐야 했다. 다음으로 古代 印度 佛敎의 지리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漢譯

經典인 《長阿含經》의 일부와 《經律異相》, 《法苑珠林》, 《雜寶藏經》 등을 참고하였다.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알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漢譯 혹은 韓譯된 경전만이 유일한 자료였다.

II. 고대 세계인의 지리 관념이 가지는 특징

현대적 관점에서 지리학이란 분야는 사회과학에 속하는 범주이다. 그러나, 고대의 중국에서는 天·地·人을 나라의 근간으로 간주하고, 특히 地·人을 治天의 도구로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역대 중국의 史書에는 반드시 地理志가 포함되어 있으며, 《隋書·經籍志》 지리류의 總叙에서도 보이듯이 지리서를 저술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황제의 교화가 미치는, 혹은 교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을 구분하거나, 이들 지역의 인민들의 특성이나 산물들을 파악하여 황제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²⁾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후기 李重煥에 의해 만들어진 《擇里志》에서도 어떤 지역의 지형학적 특징과 그로인해 그 지역 백성들의 성품이 결정된다는 식의 환경결정론 혹은 인문지리적인 특징이 발견된다.³⁾

한편, 고대 서양의 지리학사를 살펴보면 지리학의 출발을 언제로 설정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데, 대체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학문적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을 때를 전후하여 고대 지리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서양에서도 고대의 지리학은 전문적인 지리학 연구의 차원이 라기보다는 삼라만상을 연구하는 박물학적 성격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2) “五方土地風氣所生，強弱輕重飲食衣服各有其性，不可變遷 是故疆理天下物其土宜知其利害，達其志而通其欲 齊其政而修其教” 라고 하여 위정자는 반드시 地誌에 통달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됨을 밝히고 있다. (唐 魏徵等 撰,《隋書》, 806쪽)

3) 李重煥 著·이익성 역, 《택리지 : 한국 풍수지리학의 원전》, 을유문화사, 2002년 참고.

그리하여 서양의 고대 지리학은 대체로 地方志的 전통, 數理天文學的 전통, 神學的 전통 등의 흐름으로 가름해 볼 수 있다⁴⁾

고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가와 문학작품들은 전문적인 지리서는 아니었지만, 당시 알려진 세계의 여러 지방에 관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고대 그리스의 2대 서사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호머(Homer)의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들은 지리적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최고의 저술로 인정받고 있다. 전자는 기원전 9세기경에, 후자는 기원전 8세기 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머는 기원전 1159년경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과 그 후 그리스의 전쟁 영웅들이 귀국하기까지의 유랑에 관한 기사에서 이들이 여행했던 여러 지방의 지리적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모습, 풍물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대 유럽과 아시아의 각 지방에 대해 기록한 초기의 지방지적 기술들은 유럽문학에 있어 최초의 위대한 산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헤로도투스(Herodotus, 기원전 485 ~ 425년)의 저서 《역사(Histories)》에 집대성되어 있다. 헤로도투스는 알려진 세계에 대한 방대한 기사들을 스스로의 탐험여행을 통하여 쌓은 견문과 각종 유물 및 문학작품, 그리고 구술과 함께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그의 책에는 지중해와 흑해 연안 제국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각지의 풍토, 주민, 산물 등 민속지적 사실이 아주 풍부하게 기재되어 있다.⁵⁾ 이 책에도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공상적으로 생각되는 많은 이야기와 각종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지리서에 기술되어진 이국의 기이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4) 권용우·안영진 지음, 《지리학사》(한울아카데미, 2001년), 15쪽 참고.

5) M.I 핀리/이용찬 역, 《(그리스의 역사가들) 헤로도투스 : 역사》(대원사, 1991년), 서문 참조

Ⅲ. 고대 중국의 지리 관념

고대의 중국에서 전문 지리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역사기록의 일부로서 지리에 대한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尚書》의 <禹貢>편이나, 《呂氏春秋》의 <有始覽>, 《淮南子》의 <地形訓> 등이 그러하다. 《상서》의 <우공> 편에는 중국을 최초로 九州로 나누어 이에 대한 경계를 세우고, 해당 지역의 산과 강물들을 다스려 소통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⁶⁾ <우공>편은 당시의 행정구획, 산천의 분포, 교통과 산물, 토지와 貢賦의 등급 등을 기록하고 있어, 중국 정통 지리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편 of 저작연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나, 춘추 말에서 전국 초에 이루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런데, 중국 최초의 지역 구분인 ‘九州說’에서 등장하는 숫자 9는 아마도 당시의 실제적인 구획의 숫자였다기 보다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전체를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9일 가능성이 크다. 즉, 중원지역을 나누다보니 이홉 개의 지역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전체에 대한 통치라는 관념을 투사하기 위한 장치로서 완전수 9를 상징하고 여기에 각각의 지역을 대응시켰을 것이다.⁷⁾

이러한 九州의 분류 의식은 서북방의 梁州가 동북방의 幽州로 교체되었을 뿐, 《여씨춘추》에도 그대로 이어진다.⁸⁾ 《여씨춘추》에서는 九州와 더불어 九山, 九塞, 九藪, 八風, 六川 등이 등장하여 실제 지리 관념에 陰陽家적인 관념이 더욱 짙게 결합되었다. 아울러 이 모든 구획의 분류가 하늘의 구분인 九野에 대응하기 위해 나뉘어 진 것이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天·地·人 相應’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⁹⁾ 《여씨춘추》

6) 李學勤 主編, 《尚書正義》(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132-133 쪽 참고

7) 고대 중국에서의 數는 실제 개수를 나타내는 의미보다는 陰陽을 뜻하는 2, 五行을 뜻하는 5, 八卦를 뜻하는 8, 九宮을 뜻하는 9처럼 우주의 진리를 인간세계에 암시해주는 우주질서의 매개체로서 신비화 되었던 경향이 있다. 數에 얽힌 중국문화의 신비코드에 대해서는 유효균 저·임채우 역, 《술수와 수학 사이의 중국문화》(동과서, 2001년)를 참고할 것.

8) 김근 역주, 《呂氏春秋》(민음사, 1997년) 제2권 1527쪽 참고

로부터 100여년 뒤에 편찬된 《淮南子》는 漢代 초기의 哲學, 天文, 地理, 時則, 神話, 傳說, 심지어 兵法 등 모든 것을 망라하는 백과전서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의 <地形訓>에는 중국의 지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얼핏 《여씨춘추》의 내용을 확대 수용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강한 道家적 색채와 공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우공>과 《여씨춘추》에서의 九州가 江과 山으로 경계가 지어진 데 비해, 《회남자》의 九州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八方과 가운데 중앙을 결합시켜 도출된 개념이다.

무엇을 九州라 하는가? 東南은 神州이니 農土라 하고, 正南은 次州이니 沃土라 한다. 西南은 戎州이니 稻土라 하고, 正西는 兪州이니 并土라 한다. 正中은 冀州이니 中土라 하고, 西北은 台州이니 肥土라 한다. 正北은 濟州이니 成土라 하고 東北은 薄州이니 隱土라 하며, 正東은 陽州이니 申土라 한다.¹⁰⁾

즉, 《여씨춘추》와 같은 九州이지만 《회남자》의 九州說은 ‘東-西-南-北-中’이라는 陰陽五行說의 五方位 관념으로 재해석한 九州說인 것이다.

아울러, <지형훈>에서는 九州 밖의 세계가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八殯’과 ‘八紘’, ‘八極’이다. 즉, 九州의 밖에 八殯이라는 四方 千里의 세계가 있으며, 八殯의 밖에는 또 八紘이라는 사방 천리의 세계, 八紘의 밖은 다시 사방 천리의 八極의 세계로 펼쳐지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세계의 지명과 현상은 상상의 기록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회남자》에서는 모든 방위와 지형, 산물의 특성에 백성들의 성격과 사물의 색깔까지 모든 요소를 조합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9) 分野는 《呂氏春秋》의 九野에서 12次 分野로 다시 28宿로 변화하는데, 《周禮》에 대한 鄭玄의 주석에 “九州에는 천자가 여러나라들에 봉해준 지역이 있고, 하늘의 별에도 각기 나누어준 分野가 있다” 라는 언급이 있다.
- 10) 何謂九州? 東南神州曰農土, 正南次州曰沃土, 西南戎州曰滔土, 正西兪州曰并土, 正中冀州曰中土, 西北台州曰肥土, 正北濟州曰成土, 東北薄州曰隱土, 正東陽州曰申土. (何寧 撰, 《淮南子集釋》(中華書局, 1998年) 上卷 312쪽)

토지는 각기 그 종류에 따라 사람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山 기운이 강한 지역에는 남자가 많고, 습기가 많은 지역에는 여자가 많으며, 사방이 확 막힌 지역에는 병어리가 많고, 바람이 센 지역에는 귀머거리가 많으며 …… 더운 지역에는 일찍 죽는 자가 많으며, 추운 지역에는 장수하는 자가 많고, …… 맑은 물은 소리가 작고 탁한 물은 소리가 큰 것처럼, 급류가 흐르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동이 가볍고, 느린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동이 무거우며, 그 중간 지역에는 성인이 많이 태어난다. 모두 그 지역의 기운을 닮고 그 지세의 형태에 감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방에는 죽지 않는 풀이 있고 북방에는 녹지 않는 얼음이 있다. 동방에는 군자의 나라가 있고 서방에는 형체가 일그러진 시체가 있다.¹¹⁾

南方은 陽氣가 쌓이는 곳이고, 덥고 습한 곳이다. 그곳 사람은 긴 형체 뾰족한 머리통, 큰 입, 실눈초리로 신체의 각 구멍은 귀로 통하며 혈액이 여기에 속한다. 적색은 마음을 주관하고 일찍 장대해지나 요절한다. 그 땅은 벼가 자라기에 적당하고 외뿔소와 코끼리가 많다. …… 중앙은 사방으로 통하여 風氣가 통하는 곳이고, 비와 이슬이 모이는 곳이다. 그곳 사람은 큰 얼굴, 짧은 턱과 아름다운 수염, 살이 찐 형체인데, 신체의 각 구멍은 입으로 통하며 피부와 살이 여기에 속한다. 황색은 위를 주관하는데 지혜롭고 성스러워 정치를 좋아한다. 그 땅은 곡식에 적당하고 소·양을 비롯하여 六畜이 많다.¹²⁾

위에서 열거한 五方の 개념과 지형의 특색, 그 곳 백성들의 신체적 특징과 성격, 해당 색깔과 산물의 특성 등은 다소 자의적이다. 이런 五方の 개념을 접하면 그것을 실제 中原에 대입하여, 중앙을 중심으로 삼고 이로

11) 土地各以其類生。是故山氣多男，澤氣多女，障氣多暗，風氣多聾，… 暑氣多夭，寒氣多壽，… 清水音小，濁水音大，湍水人輕，遲水人重，中土多聖人，皆象其氣，皆應其類。故南方有不死之草，北方有不釋之冰，東方有君子之國，西方有形殘之尸。(何寧 撰，《淮南子集釋》上卷 338-341 쪽)

12) 南方陽氣之所積，暑濕居之。其人脩形兌上，大口決眦，竅通於耳，血脈屬焉，赤色主心，早壯而夭；其地宜稻，多兕象。… 中央四達，風氣之所通，雨露之所會也。其人大面短頤，美須惡肥，竅通於口，膚肉屬焉，黃色主胃，慧聖而好治；其地宜禾，多牛羊及六畜。(何寧 撰，《淮南子集釋》上卷 353, 354쪽)

부터 동서남북의 특징들을 대입 유추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지리를 개념적 五方に 결합시키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향적인 가치체계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에서 보이듯이 중앙은 中華를 은연중에 의미하는데 성격이 원만하고 물산이 풍부한 중용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방위개념은 五方보다도 더 먼 이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안과 밖’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자아와 타자’라는 심리적 거리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는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타자를 묘사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대체로 海外에는 서른여섯개의 나라가 있다. 서북방으로부터 서남방까지에는 긴 다리를 가진 민족, 천의 민족과 숙신의 민족, 몸과 머리가 흰 민족, 옥의 민족, 수염이 없는 여자와 같은 민족, 장부 같은 썩직한 민족, 한 다리만 가진 민족, 한 팔만 가진 민족, 머리 하나에 몸이 3개 있는 민족이 있다. 서남방으로부터 동남방까지에는 곁흉의 민족, 우의 민족, 환두국의 민족, 나체국의 민족, 삼묘의 민족, 두 다리를 교차하는 민족,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민족, 가슴을 앞뒤로 뚫은 민족, 혀가 거꾸로 향해 난 민족, 돼지 주둥이 같은 민족, 석 자나 되는 이빨이 입 아래로 길게 나온 민족, 한 몸에 머리가 셋 달린 민족, 몸보다 팔이 더 긴 민족이 있다. 동남방으로부터 동북방까지에는 大人國·君子國, 검은 이빨을 가진 민족, 검은 다리를 가진 민족, 몸뚱이 반쯤에 털이 난 민족, 날뛰며 정착할 줄 모르는 민족이 있다. 동북방으로부터 서북방까지에는 발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다섯 손가락으로 걷는 민족, 구멍의 민족, 깊은 눈을 가진 민족, 창자가 없는 민족, 柔利의 민족, 얼굴 복판에 눈 하나만 있는 민족, 자식을 낳지 않아 후계자가 없는 민족이 있다.¹³⁾

13) 凡海外三十六國 自西北至西南方有脩股民·天民·肅慎民·白民·沃民·女子民·丈夫民·奇股民·一臂民·三身民 自西南至東南方結胸民·羽民·讎頭國民·裸國民·三苗民·交股民·不死民·穿胸民·反舌民·豕喙民·鑿齒民·三頭民·脩臂民 自東南至東北方有大人國·君子國·黑齒民·玄股民·毛民·勞民 自東北至西北方有跂踵民·句嬰民·深目民·無腸民·柔利民·一目民·無繼民 (何寧 撰 《淮南子集釋》上卷 355-358 쪽)

이어지는 《회남자》 <지형훈>의 내용은 주로 먼 곳에 있는 상상적 지명의 이야기와 어떤 강이 어떤 산으로부터 유래했는지, 어떤 생물이 어떤 생물로부터 유래했는지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해외 36국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 쉽게 《山海經》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해경》의 기록자나 成書 연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시기에 한 개인에 의해 씌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의 저자들에 의해 여러 시대에 걸쳐 씌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다. 유력한 설로는 道家 혹은 巫의 전통을 가진 저자 그룹들에 의해 <山經>, <海經>, <大荒經>의 순서로 春秋시기부터 漢代까지 걸쳐 씌어졌다고 보는 입장이다.¹⁴⁾

서경호 교수는 자신의 저서《山海經研究》에서 《산해경》의 내용 자체 보다는 《산해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서술구조의 특징을 관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산해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되도 있는 지리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 사방으로 주변의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구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분에서 기술되고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안과 밖의 두 겹으로 형성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중구조는 <海經>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부분에서 안과 밖이라는 두 개의 대지역이 內와 外라는 글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해경》이라는 책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은 논외로 하고 이렇듯 既知의 지역과 未知의 지역,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고대 중국인들은 주변, 혹은 미지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상상력이라는 요소로 채웠던 것이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상상적인 서술은 단순히 《회남자》같은 도가적 저술이나 《산해경》같은 신비한 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正史의 지리지에서도 이런 현상은 보이는데, 《隋書》의 地理志를 보면 지금의 浙江, 江西 지역에 해

14) 《山海經》에 대한 내용은 서경호, 《산해경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년)를 주로 참조하였다.

당하는 揚州의 지리를 서술한 부분에 다음과 같은 지괴적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몇 개의 군에서는 종종 고(蠱)를 기르는데, 그중 宜春郡이 특히 많다. 蠱를 만드는 방법은 5월5일에 큰 것은 뱀에서 작은 것은 이에 이르기까지 100종의 벌레들을 모아 한 그릇에 담아두어 서로간에 잡아먹게 만든다. 최후에 살아남은 한 종을 남겨 기르는데 이것이 뱀이면 蛇蠱라 하고, 이이면 蝮蠱라 부른다. 이들이 다니며 사람을 죽이는데, 음식에 섞여 들어가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 오장을 파먹는다.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집의 재산은 蠱主의 집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3년동안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오히려 기른 자가 그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런 풍습은 몇 대에 걸쳐 자손에게 전해져 끊이지 않고 있으며 딸이 시집을 갈 때 따라가기도 한다. 干寶는 이를 일러 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侯景의 난 이후로 蠱를 기르는 집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주인이 없어지자 이 蠱들이 길거리를 날아다니다가 떨어져 죽곤 하였다.¹⁵⁾

여러가지 蠱에 대한 이야기는 干寶의 《搜神記》등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일종의 요괴와도 같은 蠱의 존재나, 이런 蠱가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기록 등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비과학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정사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황당하고 허구적인 정보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 지역의 기이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곧잘 활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울러 당시의 역사 기록지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정보만이 아닌 인구에 회자되는, 혹은 어디선가 수집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고대 중국에서 지리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지리적 지식을 기록하기 위

15) 然此數郡，往往畜蠱，而宜春偏甚。其法以五月五日聚百種蠱，大者至蛇，小者至蝮，合置器中，令自相啖，餘一種存者留之，蛇則曰蛇蠱，蝮則曰蝮蠱，行以殺人，因食入人腹內，食其五臟，死則其產移入蠱主之家，三年不殺他人，則畜者自鍾其弊，累世子孫相傳不絕，亦有隨女子嫁焉。干寶謂之爲鬼，其實非也。自侯景亂後，蠱家多絕，既無主人，故飛遊道路之中則殞焉。（唐 魏徵等 撰《隋書》（中華書局 1997年），887쪽）

한 것만이 아닌, 지리에 관련된 숫자나 方位, 遠近 등의 요소에 이데올로기와 상상력이 덧씌워진 복합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표현방식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로 長沙 馬王堆에서 발견된 長沙 부근의 지도를 들 수 있겠다. 그 지역 지방지에 딸린 이 지도에는 해당 지역의 축적과 주변 지역의 축적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중심 지역의 지형지물은 매우 상세히 그려져 있는 반면에, 주변으로 갈수록 소략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고지도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다.

IV. 漢譯佛經에서 보이는 古代 印度 佛敎의 지리 관념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은 흔히 後漢 明帝 때(BC 1세기) 라고 하지만, 아마 이전부터 西域이나 雲南 四川 지역 등 인도와의 왕래가 있었던 루트를 통해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외중에 불교가 왜곡과 변형을 거치며 중국인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해경》의 저자를 인도인이라고 보거나, 심지어 墨子가 브라만교를 포교하기 위해 건너온 인도인으로 자신의 제자인 隨巢子를 시켜 《산해경》을 저술토록 하였다는 주장도 있는 걸 보면¹⁶⁾, 춘추전국시기부터 인도인과 중국인이 교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럼 佛家에서 말하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불교 초기 경전인 《長阿含經》에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세계의 모양을 설법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하나의 일월이 四天下를 두루 다니면서 광명을 비추는 바 이와 같은 세계가 천개가 있다. 一千 세계 가운데는 천개의 일월, 천개의 수미산왕, 사천개의 천하, 사천개의 대천하, 사천의 바닷물, …… 천명의 염라왕, 천명

16) 서경호, 《山海經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년), 76쪽 참고.

의 사천왕, 천의 도리천, 천의 염마천, 천의 도솔천, 천의 화자재천, 천의 타화자재천, 천의 범천이 있다. 이것을 小千세계라 한다. 하나의 소천세계와 똑같은 모양의 천개의 소천세계가 있으니, 이것을 中千세계라 한다. 하나의 중천세계와 똑같은 세계가 천개가 있으니, 이것을 三千의 大千세계라 한다. 이와 같이 세계가 겹겹으로 생겼다 무너졌다 하면서 중생이 살아가는 삼천대천세계를 一佛세계라 한다.¹⁷⁾

이에 따르면 일불세계인 삼천대천세계 안에는 천이 세 번 제공해진 10억개의 須彌山과 10억명의 四天王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상상력의 크기가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는 지상에서만 구현되는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의 小世界에 72개의 하늘 세계와 18층의 땅속 세계가 있으니 옆으로 위아래로 모두 광대하게 확장되는 세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小世界를 이루는 四天下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먼저 전설상의 산인 須彌山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세계가 배치되어 있다.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수미산 왕은 네가지 보물로 성을 만들었는데, 수미산 북쪽에 천하가 있으니 鬱單越이라 이름한다. 너비와 길이가 각각 40만리에 모양은 방정하다. 수미산 동쪽에 천하가 있으니 弗于逮라 이름한다. 너비와 길이는 각각 36만리이고 둘레가 둥근 모양이다. 수미산 서쪽에 천하가 있으니 俱耶尼라 이름한다. 너비와 길이가 각각 32만리이고 그 땅의 모양은 반달과 같다. 수미산 남쪽에 천하가 있으니 閻浮提라 이름한다. 그 땅은 너비와 길이가 각각 28만리며, 북쪽은 넓고 남쪽은 좁은 형태로 이루어졌다.¹⁸⁾

17) 佛言諸比丘，如一日月旋照四天下時，爾所四千天下世界，有千日月，有千須彌山王，有四千天下，四千大海水，四千大龍宮，四千大金翅鳥，四千惡道，四千大惡道，七千種種大樹，八千種種大山，萬種種大泥梨，是名爲一小千世界。如一千小世界，爾所小千千世界，是名爲中千世界。如一中千世界，爾所中千千世界，是名爲三千世界。悉燒成敗，是爲一佛刹（《大正新修大藏經》1冊14卷《長阿含經》〈閻浮提洲品〉중에서)

18) 佛言比丘，須彌山王以四寶作城，琉璃水精金銀，須彌山王北有天下，名鬱單曰，廣

K C I

長各四十萬里, 正方, 須彌山王東有天下, 名弗于逮, 廣長各三十六萬里, 周匝正圓
須彌山王西有天下, 名俱耶尼, 廣長各三十二萬里, 如半月形, 須彌山王南有天下,
名閻浮利, 廣長各二十八萬里, 北廣南狹. (《大正新修大藏經》 1冊114卷 《長阿
含經》 <閻浮提洲品> 중에서)

즉, 須彌山을 중심으로 동쪽에 弗于逮 서쪽에 俱耶尼 남쪽에 閻浮提 북쪽에 鬱單越이라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불경의 곳곳을 읽어보면 각각의 네 세계에 중생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 가장 가까운 곳은 남쪽의 閻浮提라는 것이 행간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다면 閻浮提는 또 어떤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閻浮提에 대한 설명이 대승 경전인 《佛說十二遊經》에 나온다.

閻浮提에는 16개의 대국과 8만4천개의 성이 있고, 8명의 국왕과 4명의 천자가 있다. 동쪽에는 旃荼羅 천자가 있는데, 그 곳 백성들은 강대하고 왕성하다. 남쪽에는 天竺國 천자가 있는데, 그 땅에서는 코끼리가 많이 난다. 서쪽에는 大秦國 천자가 있는데, 그 땅에는 금과 옥이 풍부하다. 북쪽에는 月支國 천자가 있는데, 그 땅에는 좋은 말이 많다. 이 8만 천개의 城에는 6천4백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물이며 소리들이 각각 다르다. 또 56만억의 부락이 있고, 물고기는 6천4백종이 있으며, 새는 4천5백종, 짐승들은 2천4백종이 있다. 또 나무는 萬가지 종이 있고, 풀은 8천종이 있으며, 여러가지 약이 7백40종, 여러 향이 43종 있다. 보배가 121종 있으며, 그중 正寶가 7종이다. 바다 가운데에도 2천5백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 180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곡식을 먹고, 330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물고기나 약어 자라 등을 잡아먹는다.¹⁹⁾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閻浮提를 이루는 지역에 대한 서술이 당시의 지리적 정보와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須彌山도 상상이요, 그 주위의 四天下도 상상이었지만, 그중 우리 인간세계와 가장 가까운 閻

19) 閻浮提中有十六大國八萬四千城。有八國王四天子。東有旃荼羅天子。人民熾盛。南有天竺國天子。土地多饒象。西有大秦國天子。土地饒金玉。北有月支天子。土地多好馬。八萬四千城中有六千四百種人。萬物音響各別。有五十六萬億丘聚。魚有六千四百種。鳥有四千五百種。獸有二千四百種。樹有萬種。草有八千種。雜藥有七百四十種。雜香有四十三種。寶有百二十一種。正寶有七種。海中有二千五百國。有百八十國。人噉五穀。有三百三十國。人噉魚鼈鼉。 (唐 道世撰, 《法苑珠林》(《佛藏要籍選刊》第一冊上, 海古籍出版社 1991年, 卷四十四, 358쪽)

부제를 이루고 있는 큰 나라들에 대한 서술은 古代 印度 주변의 역사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佛說十二遊經>은 大乘經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경전에 속하므로 佛滅 후 400년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기원전 100년 정도인데, 그때는 실제로 동쪽에는 秦나라, 서쪽에는 로마제국이 있었고, 인도에서는 아쇼카왕이 인도를 통일한 후의 일이다. 아울러 북방에 율지라는 유목국가가 대단히 강성해져 있던 것도 그때이다.²⁰⁾ 석가모니의 직접적 언급이건, 佛說에 기탁한 후세 인도인의 기록이건 당시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염부제에 대한 이 기록은 지금의 우리들이 보기엔 실제 정보와 허구적 상상력이 적절히 섞여있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방향에 있는 세계는 누가 사는 곳인가? 일단 염부제를 당시의 실제 세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상정한다면, 나머지 세계들은 허구적 세계가 된다. 불경에서는 나머지 세 개의 세계 역시 중생이 사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곳의 중생들은 생김새나 수명, 먹고 입는 것과 산물 등 모든 것이 현실세계의 그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불경에서는 이 네 개의 세계를 수명과 중생의 성품 등에서 염부제 → 구야니 = 불우체 → 울단월 순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명에 있어 염부제 중생들의 수명은 120세이지만, 불우체와 구야니는 300세이며, 울단월 중생들은 수명이 1,000세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울단월의 중생들의 생활에 대해 대단히 께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그 땅(鬱單越)의 사람들은 신체가 서로 같고 얼굴이 서로 같아 분별할 수가 없다. 그 얼굴의 젊기는 염부제의 이십세 정도의 사람과 같다. …… 만일 그 땅의 백성들이 욕심을 일으킨 때에는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그 자리를 떠난다. 그 여자는 그의 뒤를 따라 동산 숲으로 간다. 만일 그 여인이 그 남자의 부친이나 모친의 친척이 되어 음행을 행할 수

20) 중국을 지칭하는 동쪽을 ‘秦’으로 쓰지 않고 ‘晉’으로 표기한 것은 아마도 이 경전을 漢譯한 서역승 迦留陀伽가 중국에서 활동한 시기가 東晉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통칭했을 것이다.

없는 자이면 나무는 그들을 지우지 않고 그들은 각각 흩어져 간다. 만일 친척관계가 아니며 음욕을 행할 수 있는 자이면 나무는 곧 몸을 굽혀 그들의 몸을 덮어 준다. 그들은 마음대로 오락하기를 일일, 이일, 혹은 칠일에 이르러 이에 흩어져 간다. 그 여자는 아기를 밴지 칠일이나 팔일이면 아이를 낳는다. 아들딸을 낳는대로 네거리 큰길 위에 두고 그것을 버리고 간다. 모든 행인들은 그 길을 지나다가 손가락을 내어 빨게 한다. 손가락은 단 젓을 내어 그 아이의 몸에 들어가고, 칠일이 지나면 그 아이는 성장하여 그 사람들과 같이 남자는 남자의 무리를 향하고 여자는 여자의 무리를 향한다. 그 사람들은 죽어 목숨을 마쳐도 서로 울지 않는다. 시신을 수습하여 네거리 길에 두고 간다. 그러면 우위산가라고 불리는 새가 그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 …… 또 그 땅 사람들은 대소변을 볼 때에는 땅이 곧 갈라지고 용변을 마치면 땅은 도로 스스로 합쳐진다. 그 땅 사람들은 마음에 그리워하는 것도 없고 또한 쌓아 두는 것도 없다. 수명은 항상 정해져 있어 죽으면 하늘에 태어난다.²¹⁾

위 인용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울단월이라는 세계는 분명 우리 인간의 세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상상력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 곳 세계의 중생들의 생활이 우리의 현실에서 차용하여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위 인용문을 읽고 있으면 마치 걸리며 여행기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현실인 듯하면서도 현실이 아닌, 상상력과 리얼리티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독특한 상상력은 고대 인도인들의 재산이다. 빅터 메어도 언급했듯이²²⁾ 고대 인도인들

21) 其土人身顏貌同等不可分別，其貌少壯如閻浮提二十許人。… 若其土人起欲心時，有熟視女人而捨之去，彼女隨往詣園林，若彼女人是彼男子父親母親骨肉中妻，不應行欲者樹不曲蔭，各自散去，若非親者樹則曲蔭，隨意娛樂一日二日，或至七日爾乃捨去，人懷妊七日八日便產，隨生男女置於四衢大交道頭捨之而去，有諸行人經過其邊出指含嗽，指出甘乳充遍兒身，過七日已其兒長成與彼人等，男向男衆女向女衆，彼人命終不相哭泣，莊嚴死屍置四衢道捨之而去，有鳥名憂慰禪伽，接彼死屍置於他方，又其土人大小便時地爲開坼便利訖已地還自合，其土人民無所繫戀亦無蓄積，壽命常定死盡生天。（《法苑珠林》（《佛藏要籍選刊》第一冊上，海古籍出版社，1991年），卷二，12 頁）

22) 빅터 메어(Victor H. Mair)는 1980년 필라델피아 동양학회에 제출한 <중국

이 보여주는 이러한 풍부한 상상력은 중국에 전래되어 중국에서 허구 장르인 소설과 극 같은 양식이 발전하게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印度의 상상력과 中國의 상상력, 그 구조와 해석

위에서 우리는 중국 고대의 지리서들을 통해 고대 중국인이 이 세계를 어떻게 구분하였고, 미지의 세계를 어떠한 정보들로 채웠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漢譯된 불경에서 불교로 대표되는 고대 인도의 지리 관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양자의 지리 관념에는 공통점과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단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 세계와 저 세계에 대한 서술이 지리서라는 한 공간에 조화롭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³⁾ 즉, 이미 알려진 이 세계의 정보들은 실제 지리적 지식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저 세계의 정보들은 이 세계의 그것을 모방한 상상력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저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既知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한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사실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력이란 없으며, 상상력의 크기와 내용도 당시 사회의 현실에서 응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해경》이 되었건, 《회남자》가 되었건, 《아함경》이 되었건, 그 속에 담겨진 허구적

의 서사혁명: 존재론적 전제>라는 논문에서 중국 서사 전통에 끼친 인도 불교의 충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는 고대 인도의 환상 개념과 불교적 상상력이 중국 서사의 허구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케네스 드워스킨(Kenneth J. DeWoskin)은 <서사혁명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써서 중국 서사의 허구 관념이 원래 존재했음과 중국에서의 서사 전통의 뿌리를 밝힘으로써 빅터 메어의 주장을 논박하였다. 이 논문들은 김진곤 편역, 《이야기 小說 Novel》(예문서원, 2001년)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 23) 이것을 此岸과 彼岸이라는 불교 용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승과 저승이라는 개념으로, 혹은 既知의 세계와 未知의 세계라는 공간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死後의 세계이건 공간적인 他界이건, 중심에 있는 이들에겐 모두 未知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내용들은 모두 현실의 존재들을 가공 변형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오래 살
고픈 욕망이 1,000살이라는 수명을 만들어냈을 것이며, 새와 인간의 결합
을 욕망하여 羽民國이라는 상상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태산 같은 높은 산을
바라보며 세계의 중심일 것이라는 곤륜산과 수미산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대 중국의 지리관과 고대 불교의 지리관의 구
조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남자》나 《산해경》에서 보
이는 고대 중국의 세계는 먼저 하나의 중심이 설정되고, 그 중심을 둘러
싸고 사방 혹은 팔방의 주변이 점점 확대되는 형태의 구조를 취한다. 이
때 중심은 中原지역이 될 것이다.(그림 1 참조) 이것을 우리는 평면적 구
조 혹은 동심원적 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불교에서 말하
는 세계는 먼저 상상의 중심 須彌山을 상징하고 그 南方에 현 중생이 사
는 閻浮提를 위치시킨다. 다음 네 개의 방위에 각각의 세계를 만들고, 이
런 세계가 1,000개가 모여 더 큰 단위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다시 그러한
세계를 1,000개 모아 더 큰 단위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그림 2 참조) 이
것을 우리는 입체적 구조 혹은 倍加의 구조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필자는 중국 고대의 志怪類 지리서에 등장하는 異物の 형상이 인
도 불경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唐代
道世가 편찬한 佛敎類書인 《法苑珠林》에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穿胸
人國이나 刑天과 똑같은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것
은 똑같은 형상에 대해 두 전적에서 이들의 연원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법원주림》의 내용을 보자.

裸國에 나서 사는 사람은 옷을 가며이 입고 절에 들어갔기 때문이요,
馬蹄國에 태어난 사람은 신을 신은 채 불전에 올랐기 때문이며, 穿胸人의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보시하여 복을 지었다가 이내 그것을 후회했기 때
문이다. 노루나 사슴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요, 용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들을 놀려 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²⁴⁾

위 기록에서 등장하는 裸體國이나 馬蹄國 사람들은 《博物志》등에 소개되는 異國의 이야기이며, 穿胸人國 사람의 이야기는 《山海經》에 소개되어 있는 동일한 캐릭터이다. 위의 佛經에서는 보시를 행했다가 다시 그것을 후회한 사람이 과보를 받아 천홍인의 나라에 태어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山海經》에 등장하는 중국관 천홍인은 그 유래가 다르다.

貫胸國이 그 동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슴에 구멍이 나 있다. 혹은 裁國의 동쪽에 있다고도 한다.²⁵⁾

관홍국은 《異域志》에는 천홍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산해경》 원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후세 학자들이 관홍국인에 대해 恨을 붙여놓은 것이 있다.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禹가 治水를 할 때에 회계산에서 천하의 神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吳越의 山神인 防風氏가 늦게서야 도착했고, 禹는 이 신을 죽여버렸다. 후에 홍수가 평정되어 禹는 용을 타고 주변 각국을 순시하게 되었는데, 남방을 지날 때, 防風氏의 후손들이 禹를 보고 분노하여 화살을 쏘았다. 이때, 뇌성벽력이 치며 용이 끄는 수레가 禹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 防風氏의 후손들은 일이 실패한 걸 알고 스스로 제 가슴들을 찢어 자살하였다. 그러나 禹는 이들의 충정이 가상하다 여겨 불사초를 가져다 이들의 뚫린 가슴을 메워주게 하였고 다시 살아난 이들 후손들은 그때부터 가슴에서 등 뒤로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⁶⁾ 이처럼 똑같은 현상 혹은 똑같은 대상을 서로

24) 爲人生在裸國者。輕衣入精舍故。生馬蹄國者。著屣躡佛前故。生穿胸人國者。布施作福悔惜心故。生在獐鹿麋麕中者。喜驚怖人故。生在龍中者。調戲忿怒人故。(《法苑珠林》(《佛藏要籍選刊》第一冊上, 海古籍出版社, 1991年), 卷六十八, 536쪽)

25) 貫胸國在其東, 其爲人胸有竅 一曰在裁國東 (馬昌儀 《古本山海經圖說》〈海外西經〉(山東畫報出版社, 2001年), 416쪽)

26) 馬昌儀, 같은 책, 416쪽.

다르게 해석하는 있는 기록이 불경과 중국의 고전에서 종종 보이는 데, 다른 한 예를 또 살펴보자.

또 《雜寶藏經》에 말하였다. 어떤 귀신이 目犍蓮에게 사뢰었다. “나는 항상 양쪽 어깨에 눈이 있고, 가슴에 입과 코가 있으며, 언제나 머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인연입니까?” 목건련은 말하였다. 너는 전생에 사형 집행인의 제자로 있으면서 사람을 죽일 때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노끈으로 그의 상투를 매어 그를 잡아 끌어당겼으니 이 인연으로 그런 죄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 악행의 화보요, 지옥의 괴로운 과보는 후에 또 받게 되느니라.²⁷⁾

위의 귀신이 생긴 모양을 정리해보면 결국 《산해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캐릭터인 刑天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산해경》에서 형천은 어떤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을까?

刑天이 이곳에서 天帝와 신의 지위를 다투었는데 천제가 그의 머리를 잘라 常羊山에 묻자 곧 젓꼭지로 눈을 삼고 배꼽으로 입을 삼아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춤추었다.²⁸⁾

중국의 신화학자인 袁珂는 형천을 炎帝의 신하로 규정하고, 형천의 이야기는 黃帝와 炎帝 사이의 전쟁신화의 일부분으로, 죽어도 저항을 멈추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⁹⁾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동일한 인물(?)이 印度의 佛經과 중국의 고대 저작에서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27) 又雜寶藏經云。時有一鬼。白日連言。我常兩肩有眼。胸有口鼻。常無有頭。何因緣故。目連答言。汝前世時。常作魁膾弟子。若殺人時汝常有歡喜心。以繩著髻挽之。以是因緣故受如此罪。此是惡行華報。地獄苦果方在後也。(《法苑珠林》(《佛藏要籍選刊》第一冊上, 海古籍出版社, 1991年), 卷七十, 546쪽)

28) 刑天與帝至此爭神, 帝斷其首, 葬之常羊之山, 乃以乳爲目, 以臍爲口, 操干戚以舞(馬昌儀, 같은 책, 438쪽)

29) 鄭在書 역주, 《山海經》(민음사, 1985년, 229쪽 참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는 神話와 民譚을 분석하는 두 개의 시각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즉, 고대인들의 상상력에는 무언가 原形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결국 비슷한 모티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동시 발생설'과 문화적으로 우세한 어느 한 지역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 전파설'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 두 가지 가설 가운데 어느 설이 인도와 중국의 전적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동일한 형상을 설명하는데 더 유리할 것인지를 밝히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천착해서 밝혀내는 것은 아직 필자의 능력 밖의 문제이고 이 글의 요지에서도 다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비록 서로 다른 문화에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있지만, 두 개의 세계에 동일한 형상이 등장한다는 것은 중국과 인도라는 고대의 두 지역이 우리의 통념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모종의 문화적 교류 혹은 이야기의 원형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VI.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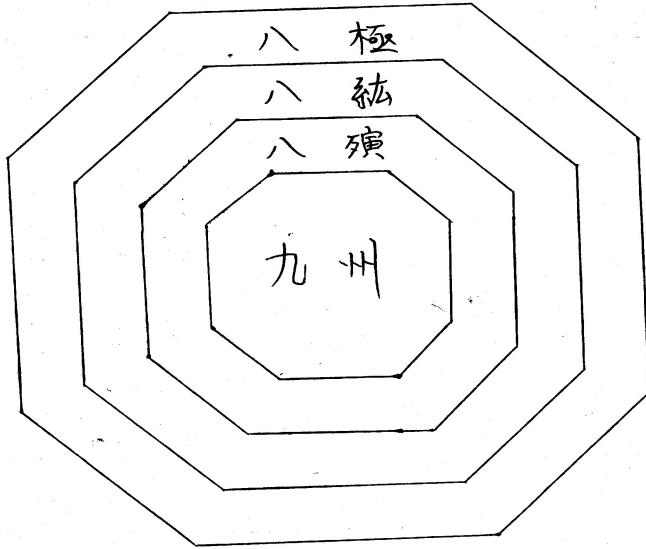
필자는 지금까지 고대 중국과 인도의 지리 관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지역 모두 고대의 지리 관념에는 다분한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 지역의 지리관이 가지는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왜 하필 필자는 지리류의 전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연구해야 할 詩나 小說 등 '순수한' 문학작품들도 많을 텐데, 굳이 中國文學을 하는 연구자가 지리서를 봐야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도 밝혔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의 지리학이 博物學적인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史部 地理類나 子部 雜家類 혹은 小說家類에 수록되어 있는 박물학적인 지리서들에서 미지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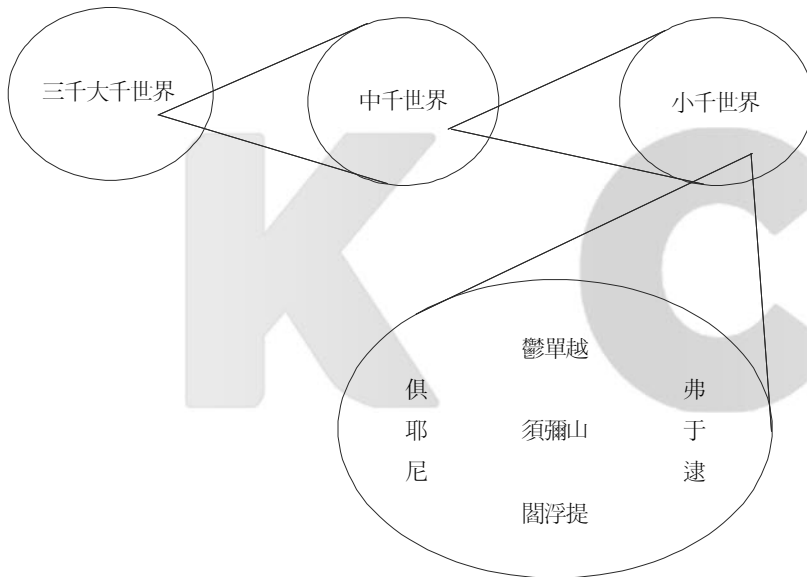
지는 이러한 상상력의 구조들이 가지는 중국적인 특수성을 밝혀 보는 것은 고대 중국인의 상상적 글쓰기의 규범을 찾아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더욱 현실적으로 박물지류, 지리지류의 지괴서들이 담고 있는 저 세계에 대한 기록들은 후세 여행기나 모험소설의 등장에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南北朝 시기에 고승 法賢이 인도를 다녀온 후 남긴 《法賢傳》이나, 唐太宗 때 인도를 순례하고 돌아온 玄奘이 기록한 《大唐西域記》 같은 지리적 기록들은 이후 話本인 《大唐三藏取經詩話》와 章回小說인 《西遊記》의 등장에 중요한 소재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고찰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으며 이제 시론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고대 인도와 중국의 상상적 이야기를 비교하고 그 원류나 영향관계, 구조적 특징 등을 비교하는 작업은 더욱 폭넓은 자료조사와 문헌들의 비교 검토 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K C I



<그림 1> 《淮南子》에서 나타나는 지리 관념



<그림 2> 印度 佛教의 지리 관념

<參考文獻>

- 이중환 저·이익성 역, 《택리지: 한국 풍수지리학의 원전》, 을유문화사, 2002년
- 권용우·안영진 지음, 《지리학사》, 한울아카데미, 2001년
- M.I 권리/이용찬 역, 《(그리스의 역사가들)헤로도투스 역사》, 대원사, 1991년
- 유효균 저·임채우 역, 《술수와 수학 사이의 중국문화》, 동과서, 2001년
- 김근 역주, 《呂氏春秋》, 민음사, 1997년
- 鄭在書 역주, 《山海經》, 민음사, 1985년
- 徐敬浩, 《山海經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년.
- 김진곤 편역, 《이야기 小說 Novel》, 예문서원, 2001년.
- 李學勤 主編, 《尚書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 何寧 撰, 《淮南子集釋》, 中華書局 1998 年
- (唐) 魏徵等 撰《隋書》, 中華書局 1997 年
- 《大正新修大藏經》(大正一切經刊行會), 1冊14卷《長阿含經》
- 唐 道世 撰, 《法苑珠林》(《佛藏要籍選刊》第一冊), 上海古籍出版社 1991 年.
- 馬昌儀, 《古本山海經圖說》, 山東畫報出版社, 2001年.
- 陳允吉·胡中行, 《佛經文學粹編》, 上海古籍出版社, 1999年.
- 季羨林, 《中印文化交流史》, 北京, 新華出版社, 1993年.
- 方立天, 《中國佛教的宇宙結構論》(《宗教學研究》, 1997 年 第 1 期
- 安正燾, 《法苑珠林敘事結構研究》, 上海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年.

<中文提要>

通过考察《尚书》〈禹贡篇〉、《吕氏春秋》、《山海经》、《淮南子》等中国古代地理书, 我们会发现古代中国人的地理观念里都包括实际上的地理知识

与想像的虚构世界。不管是正史的地理书还是志怪性的地理书，古代中国人用知识和想像力，这两个方式来试图着把握既知世界和未知世界。不过，通过阅读汉译佛典，我们也会发现古代印度人的地理观念更有丰富的想像力，特别要注目的是他们的地理观念，比如“三千大千世界说”等想像的格局，与古代中国的地理观念相比非常宏大。古代印度佛教的世界观是首先佛教以须弥山为世界的中心，其次在须弥山的四方设立“四天下”，即北方的郁单越、东方的弗于逮、西方的俱耶尼、南方的阎浮提。

有意思的是，有些佛经故事里登场的几个鬼和《山海经》里登场的异物完全一样，比与《山海经》里的刑天、穿胸人等。按照中国古代的传说，刑天原是炎帝的属臣，在一次与黄帝的争夺战中，被黄帝砍了脑袋，黄帝还把刑天的头埋在了常羊山。失去了头的刑天并没有死，他以双乳为目，以脐为口，一手操盾，一手舞斧，继续战斗。后来刑天常常被称中华民族永远不死精神的象征。然而佛经里上被描写的“鬼”只是在前生喜欢杀人砍头而得罪报的鬼而已。在这里我们可以看到，同一的故事素材在两个不同的文化背景下不同的演变过程。依据这种现象，我们可以推测，古代中国和印度之间共有故事想像力的原形，或者古代中国和印度比我们想像得更早地互相有了文化的交流。

주제어: 地理觀念, 地理書, 漢譯佛經, 既知의 世界, 未知의 世界